

- 주요 뉴스: 7월 FOMC, 정책금리 0.75%p 인상. 향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
 - 미국 6월 내구재수주 및 수출입, 2/4분기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 예상
 - 독일 8월 GfK 소비자신뢰, 기록이 시작된 1991년 이후 최저
 - 중국 6월 산업부문 기업이익, 전년동월비 증가로 전환. 경제 봉쇄 완화 등이 영향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2.6%], 달러화 약세[-0.7%], 금리 하락[-2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폭이 예상에 부합하며 매수 증가. 7주래 최고
유로 Stoxx600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0.5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향후 통화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원인
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.8%, 0.3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배경
독일은 이탈리아와의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(+6bp). 역내 취약국 우려 등이 반영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6.1원, -7.2원) 0.5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7/27일	7/26일	전일대비			7/27일	7/2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23.6	3,921.1	2.62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8%	2.81%	-2bp
	유럽	428.12	426.13	0.47%		독일	0.95%	0.93%	2bp
	중국	3,275.8	3,277.4	-0.05%	CDS 5y	한국	45bp	46bp	-1bp
	일본	27,716	27,655	0.22%		중국	82bp	83bp	-1bp
	한국	2,415.5	2,413.0	0.11%	위험 지표	EMBI+	-	467	-
환율	달러지수	106.46	107.19	-0.68%		VIX	23.24	24.69	-5.87%
	유로화	1.0200	1.0117	0.82%		WTI유	97.26	94.98	2.40%
	엔화	136.57	136.91	0.25%	원자재	구리	343.0	338.3	1.39%
	위안화	6.7590	6.7638	0.07%		금	1,734.2	1,717.3	0.98%
	원화	1,313.3	1,307.6	-0.4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7월 FOMC, 정책금리 0.75%p 인상.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

- 연준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0.75%p 인상(연방기금금리 목표는 2.25~2.50%로 상향).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요하며, 향후에도 연방기금금리 목표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. 대차대조표 축소는 기존 계획 유지
- 최근 고용은 양호하지만 소비 및 생산부문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어 경제활동은 정점을 통과 중인 것으로 판단. 향후 통화정책은 이미 정해진 경로를 따르기 보다는, 매번 회의 때마다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
- 파월 의장은 통화긴축 기초가 지속되고 있는데, 정책금리가 점진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특정 시기가 되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. 9월 FOMC에서는 이례적인 큰 폭의 추가 인상도 가능하나, 결국은 경제 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
- 한편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. 또한 경기연착륙이 가능하지만, 그 곳으로 가는 길은 더욱 좁아졌다고 첨언. 최근 큰 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효과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
- 선물시장에서는 정책금리가 연말에 3.5%에 이를 수 있다는 신호 발신. CME FedWatch Tool의 경우 연말 정책금리는 3.25~3.50%에 이를 것으로 추정. 9,11,12월 FOMC에서 각각 0.5%p, 0.25%p, 0.25%p 인상 가능성을 제시
- 골드만삭스의 Ashish Shah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반영하면, 통화긴축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. Fitch Ratings은 근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고려 시 중립금리 도달까지 가야할 길이 멀어 내년 금리인하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6월 내구재수주 및 수출입, 2/4분기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 예상

- 6월 무역수지는 982억달러 적자 기록. 이는 전월비 5.6% 감소한 것으로 작년 11월 이후 최저. 수출 급증 등에 기인. 한편 같은 달 내구재 수주는 전월비 1.9% 늘어 5월(0.8%) 대비 높은 증가세 시현. Citigroup의 Veronica Clark는 이번 결과로 2/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평가

■ 미국 상원,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가결

- 해당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및 과학연구 증진이 목적. 반도체 설비 건설과 확장을 위해 390억달러, 반도체 연구 및 인력 양성에 110억달러 등이 사용될 계획.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

■ 튀르키예,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개는 1주일 이내에 가능할 전망

- 이브라힘 칼린 대통령 대변인은 연말까지 2500만톤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. 다만 분석기관 UkrAgroConsult는 감당할 수 있는 곡물 수출 규모는 월간 350만톤이기에, 튀르키예 정부의 전망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

■ 독일 8월 GfK 소비자신뢰, 기록이 시작된 1991년 이후 최저

- 해당 지수는 -30.6으로 예상치(-28.9) 하회. GfK의 Rolf Buerkl은 장기화되고 있는 공급 차질, 급격한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, 러시아산 가스 공급 축소 등이 이번 결과를 유도했다고 평가. 또한 경기침체가 임박해 있다는 우려도 증가했다고 첨언

■ Goldman Sachs와 JPMorgan, 유로존의 경기침체 진입을 예상

- Goldman Sachs는 유로존이 에너지 공급 차질 등으로 금년 3/4분기와 4/4분기 각각 -0.1%, -0.2%의 성장률을 기록해 기술적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판단. JPMorgan 역시 가스 위기와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 여파 등으로 금년 4/4분기와 내년 1/4분기에 모두 -0.5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

■ 중국 6월 산업부문 기업이익, 전년동월비 증가로 전환. 경제 봉쇄 완화 등이 영향

- 해당 이익은 전년동월비 0.8% 늘어 전월(-6.5%)의 감소를 탈피. 이는 주요 지역에서 코로나 팬데믹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등에 기인. 시장에서는 수요 증가 등이 기업이익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7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잠정주택판매(전월비): -8.6%, 5월(0.4%), 예상치(-1.5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7/2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/4분기 성장률, 7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독일 7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이 유발하는 경기침체, 인플레이션에 더 나쁜 처방 - Financial Times

(A Fed-induced recession is a medicine worse than the disease)

- 일각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경기침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.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에게 큰 피해를 유발.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, 수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실업이 불가피.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수요 측면으로만 인플레이션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
- 샌프란시스코 연은에 의하면,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중 수요 요인 비중은 1/3 미만. 금리인상은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시에 투자도 위축시킬 가능성. 이에 관세인하, 주택건설 등 장기적으로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

■ ECB 정책에 대한 신뢰, 유로존 경제 위기 극복에 긍정적 - Financial Times

(The euro's drama is not an existential crisis)

- 최근 ECB는 유로화의 달러화 패리티(parity) 발생, 역내 국채금리 스프레드 확대, 에너지 위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상 및 파급경로보호장치(TPI) 도입을 단행
- 투자자들은 ECB의 금리인상 결정이 다소 늦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침착하게 반응. TPI의 경우 정책시행 기준 등과 관련한 이견은 법적·기능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이며 이는 향후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인식
- 유럽경제는 과거 국채위기 당시보다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나, ECB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낮은 편. 이에 ECB는 역내 경제위기 해결에 과거보다 유리한 상황

■ 미국의 기업재고 축소, 경기침체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 - WSJ

(Inventory Swing Is a Key Culprit Behind U.S. Recession Talk)

■ 중국의 1일물 레포금리 하락, 인민은행이 추진하는 완화정책의 한계를 시사 - 블룸버그

(China's Borrowing Cost Slump Shows Limits of PBOC Policy Easing)

■ 미국의 정제유 수출 금지 검토, 오히려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소지 - WSJ

(Export Ban Would Mean Higher Gas Prices for American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